

롯데홈쇼핑, 심야 특가방송 진행...최대 40% 할인

롯데홈쇼핑이 8월 11일까지 '아심찬 야(夜)시장'을 진행한다. 매일 심야 시간 방송을 통해 인기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건강 식품 '닥터솔루션 그린프로폴리스', 역시즌 상품 '루나코어스 양가죽 재킷', 패션 자채브랜드(PB) LBL 봄·여름 시즌 신상품, 흥원화·제이슨 부부의 '홍싹꾸미' 등이 대표 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비즈 포커스 | 유료방송기업들, 신규 서비스·M&A로 생존경쟁 총력

넷플릭스에 도전장 내민 SKB·KT

SKB, 국내외 콘텐츠 앞세워 월정액 서비스 '오션' 선보여
KT는 자체 OTT '시즌' 론칭
현대HCN 인수 '몸집 키우기'

국내 유료방송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인수합병(M&A) 추진 등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8일 영화 월정액 서비스 '오션'을 선보였다. 빠르게 성장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경쟁하기 위한 카드다. SK브로드밴드가 앞세운 오션의 강점은 콘텐츠다.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폭스, NBC유니버설, 소니,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스튜디오 신작을 포함한 1만1000편의 영화, '닥터 포스터', '슈츠' 등 해외 드라마 670편, 여기에 '웨이브' 콘텐츠까지 제공해 국내외 기존 OTT보다 즐길거리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 TV와 모바일을 넘나들며 이용할 수 있도록 Btv 가입자 당 최대 4대의 기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

스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할 전망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와 '웨이브'를 선보였고, KT는 자체 OTT '시즌'을 론칭했다.

케이블TV 인수합병을 통한 가입자 확대 경쟁도 2라운드에 돌입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이번엔 KT가 나섰다. 현대HCN은 27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본 계약 체결은 정부 승인 완료 후 이뤄질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KT계열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위(31.52%)다. 이어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인수한 LG유플러스(24.91%), 티브로드와 합병한 SK브로드밴드(24.17%), 딜라이브(5.98%), CMB(4.58%), 현대HCN(3.95%) 순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면 KT의 점유율은 35.47%로 올라 1위 자리를 굳힌다.

업계는 아직 딜라이브와 CMB라는 매물이 남아있는 만큼 사업자 간 물밑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르노삼성차 LPG SUV '더 뉴 QM6 LPe' 청각장애인 운전 카셰어링 차량에 선정

운전자·승객 간 의사소통 위해 태블릿PC 설치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도미니시뇨라)의 LPG SUV '더 뉴 QM6 LPe'(사진) 모델이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차량으로 선정됐다. 코엑터스는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소셜 임팩트 기업이며, '고요한 모빌리티'는 청각장애인 드라이버 등을 고용하고 서울지역에서 QM6 LPe 차량을 카셰어링 형태로 운영해 일반 승객을 태우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플랫폼 서비스의 사업차량으로 선정된 더 뉴 QM6 LPe는 국내 유일의 LPG SUV 모델로 최상의 경제성과 넓은 공간 활용성을 갖춘 차량이다. 이러한 경제성과 공간 활용성을 기반으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차량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10대에서 추후 10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 내에는 승객과 청각장애인 운전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다. 태블릿 PC에 행선지를 직접 말하거나 입력하면 청각장애인 드라이버의 모니터로 목적지가 전달돼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지난 5월 코엑터스에서 서울지역에 한해 100대의 차량만 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관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기술(CT)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선정됐다.

원성렬 기자 sereno@donga.com

라인게임즈,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공개



라인게임즈는 28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사진)을 공개했다. 국산 PC

패키지의 표지 격인 '창세기전'과 '창세기전2'의 스토리를 아우르는 리메이크 타이틀이다. 라인게임즈 개발 전문 별도 법인 레고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 중이며, 2022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젠트 전투는 원작을 계승하는 한편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모험 요소를 강화하고, 그래픽은 언리얼엔진4를 활용해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닌텐도 스위치를 기본 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며, 거치형 콘솔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민규 라인게임즈 대표는 "창세기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25년 동안 애정을 쌓아왔고 이 애정을 지키며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IP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라인게임즈는 2016년 ESA(소프트맥스)로부터 '창세기전' 지적재산권(IP) 일체를 인수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애경산업 '리큐 Z 화이트닝 파워겔' 선포



애경산업이 '리큐 Z 화이트닝 파워겔'(사진)을 선보였다. 세탁과 표백 기능을 하나에 담아 삶아 뻘 듯한 강한 세탁을 도와주는 액체세제다. 리큐만의 얼터너티브 표백 기술을 적용해 섬유 속 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강력

한 표백력으로 흰 옷을 더 하얗게 세탁하는 화이트닝 효과와 함께 색바래거나 이염 걱정없이 색깔 옷을 더욱 선명하게 관리해준다. 재오염 방지 기술을 적용해 세탁 중 제거된 미세먼지와 찌든 때가 다시 섬유에 붙지 않도록 돕는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ku@donga.com

신한·KB '리딩금융' 경쟁, 대손충당금·해외이익이 변수 작용

신한, 올 상반기 순이익 1.8조로 '1위' 2분기는 KB가 9818억으로 실적 앞서

2020년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실적에서 신한금융과 KB금융의 1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올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신한금융 1조 8055억 원, KB금융 1조 7113억 원, 하나금융 1조 3446억 원, 우리금융 660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신한금융이 리딩금융 자리

를 지켰다. 하지만 2분기(4~6월) 실적만을 보면 KB금융 9818억 원, 신한금융 8731억 원, 하나금융 6876억 원, 우리금융 1423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KB금융이 1위에 올랐다. 양사가 1승 1패씩 주고받은 셈이다. 3분기부터 KB금융이 푸르덴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어서 하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불꽃 경쟁이 예고된다.

상반기 실적은 대손충당금이 최대 변수로 작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지원과 라

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손실액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상반기 기준 신한금융 8215억 원, 하나금융 5252억 원, KB금융 4979억 원, 우리금융 4467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사모펀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KB금융이 2분기 실적에서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에 오른 것도 대손충당금 이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이익 역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금융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손충당금

을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번 깜짝 실적은 글로벌 금융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결과라는 게 하나금융 측 설명이다. 실제 하나금융의 상반기 해외이익은 1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7억 원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다소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의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진짜 위기는 3분기부터"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비만치료 중점” 뉴트로의원, 다산 신도시에 개원

15년 비만진료 경력...철저한 사후관리

뉴트로의원(원장 심규만·사진)이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에서 개원했다.

'미래형 뷰티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뉴트로의원은 비만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며 피부과 및 성형 클리닉을 통해 차별화된 의술을 전할 예정이다.

뉴트로의원은 심규만 원장의 15년 비만진료 경력을 바탕으로 근육형, 지방형, 골격형, 혼합형 등의 체형을 고려한 1:1 맞춤 비만시술을 진행한다. 단순 약에 의존하는 치료가 아닌 K수로스, EMS운동치료, 심부온열테라피, 크라이오테라피 등을 병행해 보다 건강하고 체질 변화를 유도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비만시술뿐만



아니라 보톡스, 필러 등의 뽀빠클리닉은 물론 레이저클리닉, 성형수술클리닉 등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심규만 원장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없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시술만을 권장하며 시술 이후에도 혹시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트로의원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진행)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다. 휴진은 수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물놀이템 알뜰 장만하세요” 홈플러스가 8월12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여름 시즌 물놀이 용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직수입 패션 튜브, 물총, 모래놀이, 빙글빙글 휠튜브, F2F 여름 스림웨어 등이 행사 상품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교육

에듀윌

임직원 위한 사내 심리상담실 '마음, 씬' 운영

직장인 번아웃증후군, 심리상담 통해 도움받으세요

다수의 직장인들이 회사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장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1위가 상사·동료와의 관계였고 이어 과도한 업무량, 낮은 연봉,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 성과에 대한 압박, 업무능력·지식 부족 등이 있었다.

또한 많은 직장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고, 번아웃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사생활에서 찾아오는 업무 스트레스는 일의 생산성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

을 미친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심리상담실 '마음, 씬'을 운영하고 있다.

에듀윌 임직원들은 사전예약을 한 뒤 자유롭게 심리상담실을 찾아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심리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풍부한 심리 상담 경험을 쌓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음, 씬'은 임직원 1:1 맞춤 상담 외에도 심리검사 및 해석,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팀소통 프로그램, 임직원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마음, 씬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해 많은 임직원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